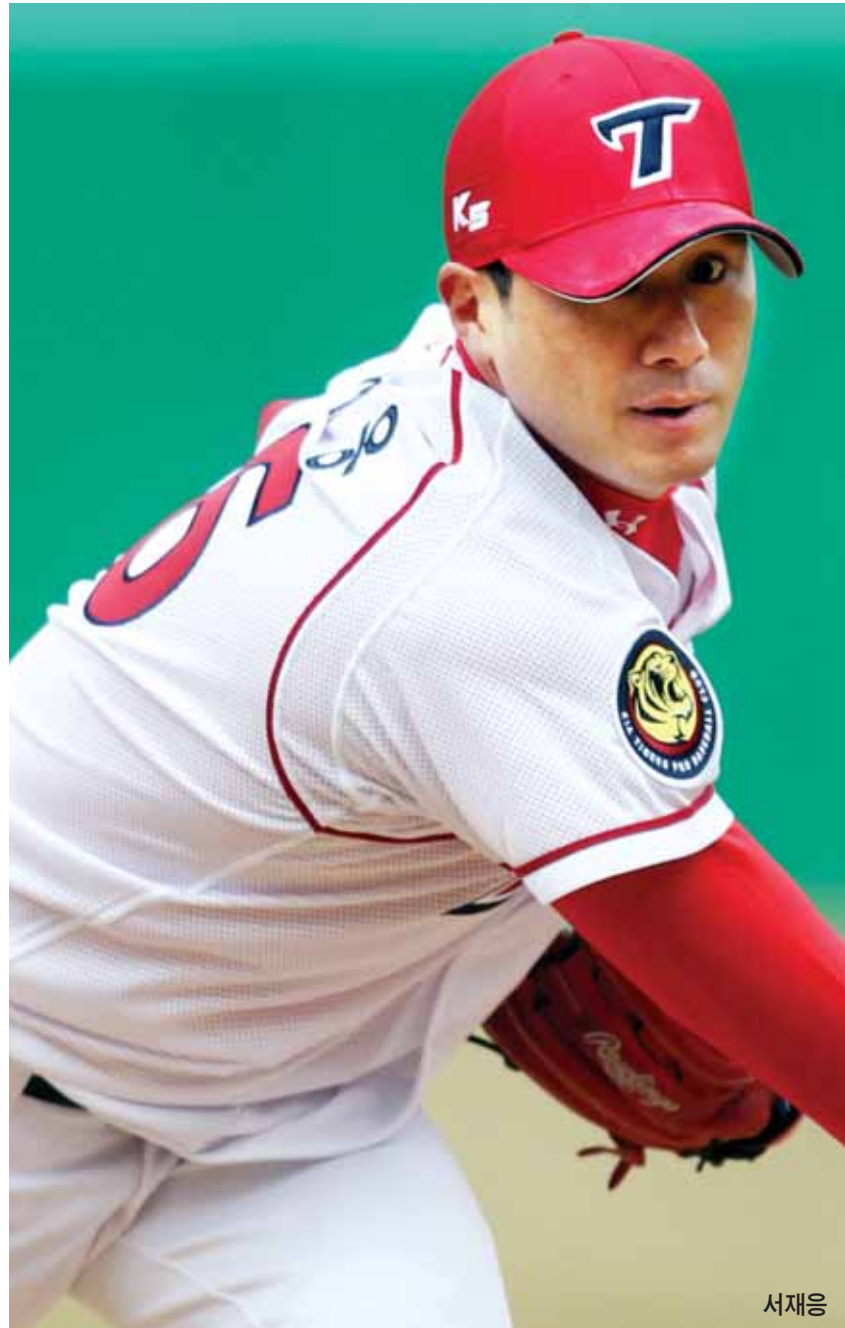


‘감’ 찾은 형님들...호랑이 ‘이빨’ 사나워진다



서재웅

서재웅·김병현 한화와 3군 경기 등판 컨디션 점검

서, 퓨처스리그 삼성전 대비 조율...김, 2이닝 무실점

KIA의 베테랑 서재웅과 김병현이 1군 진입을 위한 시동을 켰다.

부상으로 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던 투수 서재웅과 김병현이 1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3군 경기 등판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처음 실전피칭에 나선 두 베테랑은 두 번째 실전을 소화하며 2015시즌을 위한 열을 올렸다.

서재웅은 이날 등판에서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서재웅은 1이닝 동안 9개의 공을 던지면서 오는 4일 함평에서 열리는 퓨처스리그 삼성전 선발 등판에 대비했다.

캠프 재활캠프에서 몸을 만들었던 서재웅은 대만 2군 캠프에 합류하자마자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오면서 재활조가 됐다. 두 차례 연습경기 이후 2군 경기 출전 날짜도 잡히면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서게 됐다.

김병현의 복귀 준비도 순조롭다. 캠프 재활캠프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며 중도 귀국을 했던 김병현은 지난 28일 마운드에 처음 선 뒤 1일 연습경기에서는 2이닝을 소화했다.

김병현은 2이닝 동안 28개의 공을 던지면서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병현은 서재웅에 이어 5일 2군 경기 출격해 시즌 리허설을 한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광정철과 한기주의 복귀 준비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두 선수는 지난 31일 한화와의 3군 경기 모습을 드러냈다.

28일에 이어 31일 두 번째 경기를 치른 광정철은 2이닝 동안 28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 적응에 나섰다. 1피안타 1탈삼진으로 실점을 하지 않은 광정철은 직구 최고 구속 142km를 찍었다. 스피드 보다는 실전 감각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몸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기주도 이닝을 늘려가면서 감을 잡고 있다. 지난 27일 세 번째 실전 등판에서 3이닝을 던졌던 한기주는 31일에는 67개의 공으로 4이닝을 책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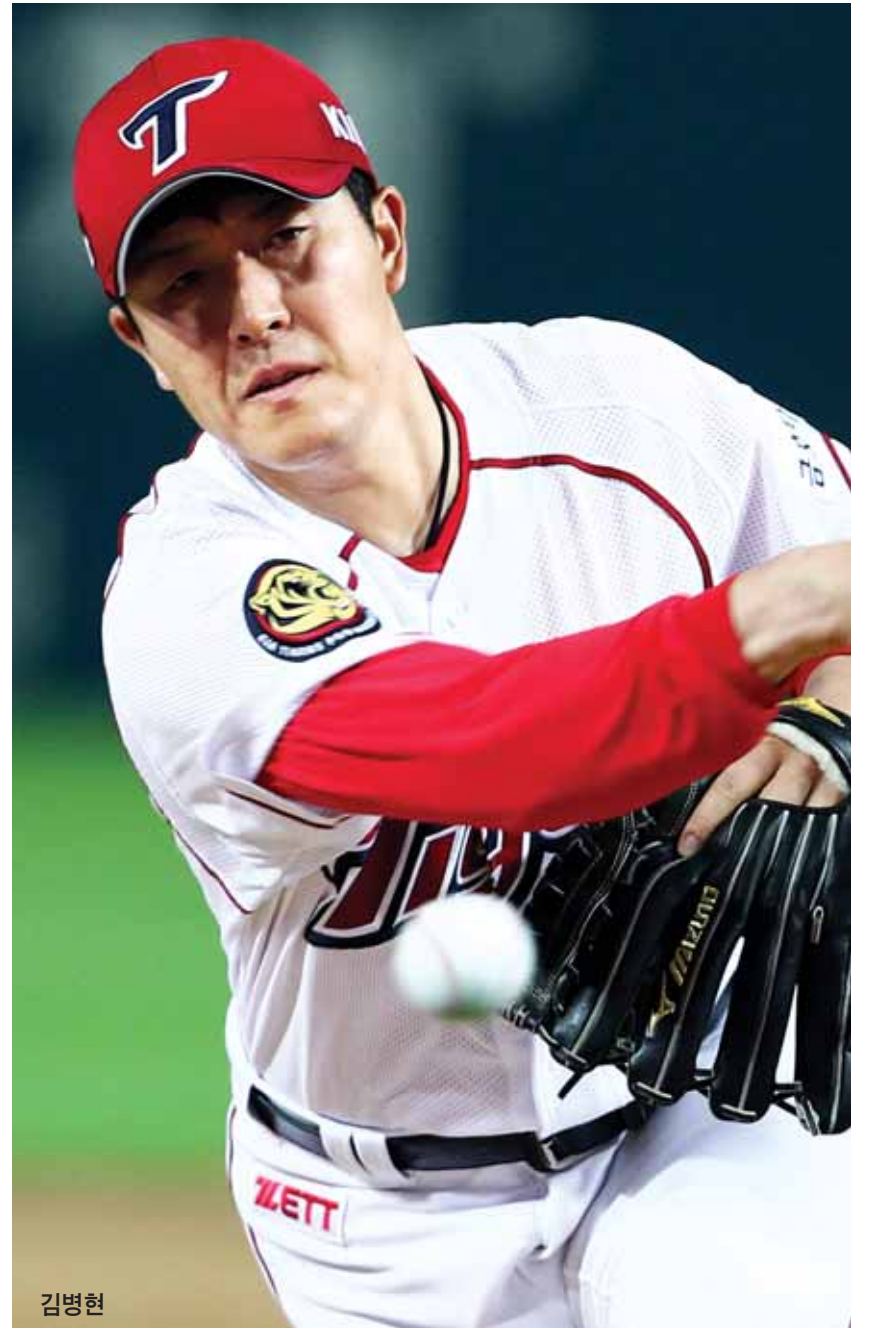
기록은 4이닝 4피안타 3사사구 1실점. 몸에 맞는 볼 두 개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최고 구속 144km의 직구와 함께 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김진우의 복귀 시점은 다소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대만 2군 캠프에서 종아리 근육 부분 파열 부상을 당했던 김진우는 1일 상무와의 2군 원정 경기를 통해 첫 실전 피칭에 나선 예정이었다.

하지만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실전 체제로의 전환이 미뤄졌다. 김진우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이번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병현

‘핫가이’ 강정호

MLB 닷컴 ‘주목할 유망주 10’ 선정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주목해야 할 유망주 10명’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했다.

MLB닷컴은 1일(이하 한국시간) 개막전 특집 기사로 유망주 10명을 선정해 소개했다.

MLB닷컴은 “한국인 내야수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서 대단한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강정호는 4월 7일 개막전에서 엔트리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강정호가 한국에서 40홈런을 쳤던 기량을 메이저리그에서도 펼친다면 피츠버그는 기적같은 시즌을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신이 유망주로 소개된 날, 강정호는 미국 플로리다 주 레이크랜드의 조커 머천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시범경기에서 메이저리

그 정상급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상대로 1타점 2루타를 치며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클린트 허들 감독과 닐 헨팅턴 단장은 강정호를 “메이저리그 기량을 갖춘 선수”라며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외야수 작 페더슨도 주목할 유망주로 선정됐다. MLB닷컴은 “페더슨이 시범경기에서 6홈런을 치며 거포의 잠재력을 선보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투수 다니엘 노리스, 시애틀 매리너스 투수 타이후안 워커, 시카고 컵스 거포 호르헤 솔러, 보스턴 레드삭스의 쿠바 출신 외야수 러스니 카스티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팻 밴디트 등이 강정호와 함께 주목해야 할 유망주로 언급됐다.

/연합뉴스

ML 평균연봉 46억원 돌파

프로야구의 40배...다저스 커쇼, 342억원 ‘최고 몸값’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00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AP통신은 2015시즌 개막일 기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이 평균 425만 달러(약46억 8732만원)를 받는다고 1일 보도했다.

지난 시즌 개막일 기준 평균 연봉은 395만 달러(약 43억 5645만원)였고, 2013시즌은 365만 달러(약 40억 2558만원)였다.

LA 다저스의 선발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3100만 달러(약 341억8990만원)로 가장 높은 몸값을 기록했다. 저스틴 벨랜더(디트로이트 타이거스·2800만 달러)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다저스의 팀 전체 연봉은 2억7000만

달러(약 2977억원)로 역시 가장 높았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 전체 연봉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 15년 동안 뉴욕 양키스가 지켜오던 최고 연봉 구단 자리를 빼앗은 바 있다.

양키스는 올해도 연봉 총액 2억1500만 달러로 2위를 지켰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1억8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최소 연봉 구단은 마이애미 말린스(6500만 달러)였다.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은 1992년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9년 뒤인 2001년 200만 달러를 찍었으며, 7년이 지난 2008년 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참고로 2013년 미국인 전체의 평균 연봉은 4만4888 달러(약 4950만원)였다.

/연합뉴스



“카우보이 살려~”

1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크리오야 워크 행사에서 참가자가 말에서 떨어지고 있다. 최고의 카우보이를 뽑는 이번 경쟁은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